

# 濟州 漫想

崔 昌 奎

今年 9月29日 建築士協會 濟州支部의 要請으로 「現代 建築의 動向」과 「마야文化和 인카文化」라는 演題로서 濟州 KAL HOTEL에서 講演會를 가진 일이 있었다.

偶然히 事務室이 閒暇했고 學校가 連休가 겹쳐 있었고 季節이 가을이라 짧은 旅行에는 알맞는 條件에서 신나는 氣分으로 濟州를 訪問하였다.

濟州에서는 이러한 講演會라든지 展示會 등이 그리 자주 열리지 못해서인지 支部會員同志들이나 그의 補助士, 學生, 關係官庁의 公務員들까지도 參席해서 3時間半이나 和氣充溢한 가운데 뜻있게 이루어졌고 相互 質疑 応答도 진지하게 展開되어 名實共히 盛況裡에 끝났다.

支部會員同志들은 濟州에서 建築士의 社會的 地位 確保에 도움이 되었다고 기뻐들했다.

濟州란 確實히 異國의인 섬이다. 數 많은 名所들과 古跡 景致 좋은 곳 山과 그리고 바다, 方言, 新鮮한 海産物, 特別히 亞熱帶의 植物들 돌하루방이며 特異한 土産物들, 數 많은 觀光客들과 新婚旅行者들 그들이 말하는 陸地에선 흔히 볼 수 없는 事況들이 많아서 好奇와 흥분으로 소풍간 少學生마냥 즐거웠다.

講演會가 끝나고 會員들과 高級公務員들이 모여 食事も 하고 많은 이야기의 꽃이 피었다.

이승만박사의 自由黨 政權時代에 濟州를 東洋의 또 하나의 香港과 같은 國際自由港으로 하자는 案이 나왔다가 實踐되지 못했다. 그 理由는 自由港이 되면 安保上의 干渉의 침입이 쉬울 것이라는 것과, 外國商品이 들어 오면 國內製造業에 打撃이 올 것이라는 點과 또 하나는 當時의 國庫로는 自由港답게 할 施設投資가 不足하다는 點 등으로 좌절되고 말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近者에 와서 政府는 莫大한 投資를 해서 濟州道 開發에 着手했고 中文의 觀光團地나 新濟州建設, 飛行場의 大擴張, 港灣의 大整備 等 活氣찬 濟州의 모습을 볼수가 있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는 食事途中 한담에서 主要한 話題였던 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이 濟州 漫想을 쓰게 된 動機로는 問談途中에 最高位 官職에 있는 分의 問談中에 觀光순환道路의 街路樹를 別채해야겠다는데 대한 나의 所見을 말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 理由인즉 濟州에는 觀光客이 많이 온다. 그것은 山과 바다를 보기 위해서 온다. 그 山과 바다를 보는데 街路樹가 支障이 된다는 것이다.

하도 어처구니 없는 理由와 施策에 놀랄수밖에 없었고 有口無言으로 아연했을 뿐이었다. 도대체 이러한 施策樹立이나 決行의 決定權을 가진 公務員들은 이部門의 專門家들의 의견을 들어 보았는지 또는 濟州島民의 見解를 들어보고 하는 것인지 의심이 가는 것이다.

바로 講演會를 主催한 士協支部는 이곳에서 이 部門의 專門團體임에도 不拘하고 이러한 些小한 것 같으면서도 濟州 全島의 景觀이 關係되는 重要한 일에 參與할 수 없었는지, 意見 陳述이나, 建設的인 建議같은 것을 한적이 있었는지, 또는 當地의 工業專門大學의 教授들도 이일에 參與하거나 자문에 應한 적이 있었는지 꼭 궁금한 일이다.

筆者의 순간적인 所見으로도 그 觀光 순환도로의 街路樹의 別채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 理由로는 于先 反問하려니와

- 1) 山과 바다는 濟州島에만 있는 것은 아닌데 왜 觀光客이 濟州로 모여 오는가?
- 2) 濟州道는 觀光위주여야 할 것인가, 島民위주여야 할 것인가?
- 3) 濟州의 山과 바다는 陸地의 山이나 바다와 어떤점이 다른가?
- 4) 순환道路를 통과하는 視線의 移動과 그 速度는?
- 5) 景致의 好不好的의 基準은?
- 6) 觀光客이 山과 바다를 감상하는 時間的인 것은?
- 7) 觀光客의 觀光地에서의 心理狀態는?
- 8) 순환道路는 濟州全島의 風致에 어떤 意義를 갖고 있을까?
- 9) 山과 바다에 미치는 濟州의인 氣候(氣象)은?
- 10) 濟州의인 것이 大体 무엇인가?

以上 10個 條項으로 나누어 筆者의 所見을 밝히고자 한다.

1) 은 陸地에도 또 外國에도 山과 바다는 많다. 다만 濟州의 山과 바다는 他處의 山과 바다와 전혀 다른 外觀의 인데가 있다. 즉 耽羅的인 것이기 때문이다. 地質, 地形學的 立場에서도 陸地의 그것과는 다르다. 바다 亦是 색깔부터가 다르다. 이것은 濟州의 山河의 영향이고 氣候의 영향이라고 보아야겠다. 때문에 山과 바다와 다를 뿐만 아니라 觀光오는 사람들은 오직 山과 바다만을 보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旅行의 心理的 分析까지는 하지 않아도 家庭과 職場에서 解放되고 싶은 慾望이라든지 즉 旅行者의 心理로서 自己住居하는 周圍에 없는 人文이나 風致나 學術的 浪漫的 霧靄氣가 要求되기 때문인데 濟州가 이러한 點엔 가장 쉬운 安城마중의 場所이기 때문이겠다.

2) 은 濟州島는 太古海中에 火山이 噴出했고 그後 어떤 經路이든 間에 人間이 定着하게 되었고 그 氣候에 맞추어 自然的으로 森林이 우거지게 된 것인즉 始初로 定着한 島民이 耽羅國을 建立했다든지 長久한 歲月을 거쳐 現在의 濟州島를 形成하고 있는즉 누가 무어라해도 濟州道는 島民을 위한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觀光客의 來島는 島民의 所得增大과 直結된다. 즉 島民所得 增大을 위해 觀光客이 必要한 것이지 觀光客을 위해 濟州島나 島民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主는 島民이고 觀光客은 부수적인 것이다. 여기서 主客을 전도하는 생각을 가지긴 쉽지만, 冷情히 생각해 볼 必要가 있겠다.

3) 濟州의 山은 漢拏山이고 바다는 周圍의 모든 바다이다. 漢拏山은 標高 1,964m의 우리나라의 高峰의 하나인데다 氣候의으로 山麓은 亞熱帶植物이고 中復은 溫帶植物이고 頂峯附近은 寒帶植物이 울창하다. 1개의 山에이 3候帶의 植物이 다 갖추어 있다는 點이 漢拏의 特徵의고 매력인 것이다. 더우기 山頂의 白鹿潭은 名稱 그대로 白鹿이 노닐수 있었던 것은 틀림없고 이 詩的 名稱과 千變萬化하는 山의 모습과 구름이나 안개가 더욱이 漢拏를 裝飾해 주고 있다.

바다는 隣接陸地의 影響으로 左右되는 것이며 山의 푸른 投影은 勿論 熔岩의 凝固된 海邊의 奇岩怪石이 濟州의 바다를 돋보이게 해주고 진흙과 塵埃가 적으니 海水가 澄潔하고 더우기 熔岩地層形成時의 斷崖가 많은 名瀑을 만들었고 그 瀑布의 물이 맑으니 더욱 돋보이고 世界에 有例없는 瀑布가 直接 바다에 落下하는 絶景을 낳게 하고 있다.

이렇게 바다와 山이 他處의 山과 바다에 比할수 없는 特性을 지니고 있다.

4) 物理的으로는 視野의 적은 物體도 遠景眺望에 支障이 있다. 즉 視覺障礙가 된다. 그러나 그 障礙物을 通過하는 視線과 移動速度 如何에 따라서는 아무런 支障이 없다. 이것을 손가락 하나를 눈앞에 가리면 앞이 안보인다. 그러나 그 손가락을 上下나 左右로 빨리 움직이면 앞은 다 보인다.

街路樹 伐取의 問題가 난 것은 바로 즉흥적인 山과 바다를 眺望하는데 支障이 생긴다는 物理的 思考만하고 大端한 創案이나 한것처럼 上申했고 上部는 또 簡單히 그럴사한 일이고 觀光客을 誘致해야 하는데만 熱中해서 그러한 案이 나온 것같이 생각되나 깊이 생각이나 또는 一部分의 試驗도 안해보고, 또는 專門家들의 意見도 묻지 않고 自己의 在職時에 무언가 色다른 것을 해야만 되겠다는 습관성 拙速過多症 患者들의 處事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순환道路는 徒步로가 아닌 觀光버스나 택시로 다닐 것인즉(登山客以外)는 時速 30~40km/HR 程度로 보아 道路邊의 街路樹를 確知할 수 없는 速度이다. 하물며 山과 바다의 遠景의 障礙가 될 수 없다. 人間徒步의 8~10km/HR 速度라면 街路樹의 樹種이나 꽃까지도 鑑賞할 수 있고 樹間隔(10m~15m)間에서 充分히 山과 바다의 遠景을 즐길수 있고 오히려 樹間으로 보는 景致는 더욱 韻致가 있을 것이다.

5) 到大處 景致란 무엇인가?

遠景이든 近景이든 間에 視覺的인 것과 心理的인 것이 混合해서 사람들은 鑑賞한다. 그리고 좋다 나쁘다 한다.

濟州의 山과 바다는 많은 伝說과 文言과 그리고 濃厚한 綠色과 奇岩에 구비치는 파도가 있는 바다일게다. 心理的인 또는 氣候的인 面은 姑捨하고 오직 視覺的인 面에서만 생각하더라도 景致에는 原景과 副景과 添景이 있어서 비로서 아름다운 景致를 이룩한다.

바다, 바다 하지만 茫茫大海도 그 雄壯한 맛은 있어도 거기에 帆船이나, 燈台가 있는 岬岸寺가 副景으로 있을 때 景致가 좋을 것이고 周圍나 附近에 漁夫나 釣士가 있을 때를 생각해 보든지 또는 비바람이나 눈이 내릴 때 그바다는 더욱 아름답고 해나 달이나 별等 物의 添景이 있는지 갈매기나 기러기의 翔列이 明月과 어울리듯이 반드시 어떤 副景과 添景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漢拏에는 구름과 안개가 걸려야 멋있다. 바다엔 船舶이나 奇岩의 海岸이나 白沙의 海岸이나 瀑布等이 副景, 添景으로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제아무리 景致가 좋은 곳이라도 副景과 添景없이는 朔莫한 걸이다. 山의 副景은 山麓의 村落이나 農家, 家畜, 古木, 고개길이나 街路樹등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例를 들어 泰西名畫나 傑作寫真作品의 山과 바다를 보자 반드시 副景이나 添景이 있음을 發見할 것이다. 勿論 氣象도 副景이나 添景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모름지기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것은 人間만의 것으로 오직 外形的인 것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心理的, 浪漫的, 詩的, 歷史的 各種의 內面的인 物件이 합칠 때,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다.

6) 筆者自身도 旅行을 많이 해 보았고 濟州島만도 3 회나 다녀 왔다. 그때 勿論 濟州의 山과 바다가 보고 싶 었든 것도 事實이지만 한 旅行者로서 濟州에 와서 山과 바다를 얼마만한 時間을 吟味했든가 旅行者가 되어서 그 곳에 가면 先 解放感과 余裕가 생기고 마냥 흥분과 好 奇에 차서 두리번거리고 거리로 山으로 바다로 쏘다닌다. 이때 솔직히 山과 바다를 조용히 吟味하고 鑑賞하는 것 은 호텔이나 旅館에서 쉼터머로 즐기는 時間이 더욱 時 間的으로도 긴 것을 알았다. 山과 바다가 제아무리 좋아 도 몇時間이고 山과 바다를 쳐다만 보지는 않는다. 어떤 때, 아침이나 저녁때 무료할때 배스나 비행기를 기다릴 때, 문득 詩情이나, 浪漫的인 氣分일때, 벗과 거닐다 意 外의 場所에서 골목에서 不意에 나타난 山과 바다의 놀 라움 等이다. 하물며 觀光버스속에서는 近景에 더 精神 이 쏠리고 遠景은 가끔 가끔 보게 되는 것이다.

7) 바쁜 世上에서 모처럼의 觀光이 短期間에 많은 것 을 볼 때는 慾心이 생긴다. 때문에 無理해서 疲勞를 느 낄다. 職場과 家庭과 모든 拘束에서 解放된 氣分은 철없 는 아이들 같이 된다. 名物이나 土產物·記念品을 사는데 많이 쏠린다. 어른들은 이때다라고 慰樂을 찾는다. 낮 에는 대개 名所를 찾고 밤에는 慰樂을 찾는다. 호텔이란 바로 이런것을 노린 建物이 아니겠는가, 또는 장난기가 생기고 신이 나고 明朗해진다. 觀光地 開發은 바로 이러 한 心理條件을 充足시키게 해주어야한다.

8) 5.16革命이 나자 濟州道에 5.16橫斷道路라는 것이 생겼다. 近者에 와 이것과 連結시켜서 觀光 순환 道路가 생겼다. 그러면 濟州道에서 이 순환道路란 어떤 意味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單的으로 人間, 物的量의 早速輸送 이 道路 根本 目的이다. 그러나 觀光道路란 若干의 다른 意味도 附加된다.

즉 名所나 景致 좋은 곳으로 客을 誘導한다든지 全島의 여러 名所를 順次的이고 安易하게 巡回할 수 있게 한다는 点이고 道路自体가 景致의 一部分이 된다는 点이 되 겠다.

景致의 一部分이 될려면 道路自体도 아름답게 되어야 하겠고 副景과 添景도 必要하겠고 또 道路가 副景이나 添 景이 되는 경우도 있어야겠다.

道路가 副景이 될려면 計劃時부터 位置나 句配나 補裝 이나를 深重히 考慮해야 하겠고 道路의 副景이나 添景이 될 것이라면 街路樹나 花草나 岩石이나 돌하루방등의 配 置나 SIGN BOARD 등이 되겠다. 다시 말해서 濟州道全 體를 위한 道路이지 道路를 위한 濟州島는 아니라는 点 이 되겠다.

9) 濟州의 山과 바다는 陸地와 다른 氣候속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 價值性을 發揮하고 있다. 즉 溫暖한 溫 度와 多濕한 湿度와 바람과 구름 그리고 안개가 濟州의 自然에 特有한 맛을 더해주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溫暖하기에 油菜와 감귤과 파인애플이 있지 않은가. 바 람과 안개가 있기에 陸地에서 孤立된 어떤 特殊한 獨立 性같은 것이 생각되고 距離感이 생기고 旅客은 完全한 連 絡이 杜絶되므로서 더욱 解放感을 滿喫할 수 있고 안개 와 구름에 늘 가리워있는 漢拏山이기에 더욱 쳐다보고 싶 고 수시라도 그 안개와 구름이 거치면 아— 하고 경탄의 합성을 올리는데 한라의 멋이 있는 것이다.

바람은 파도를 일게 하고 航空機를 缺航케 한다.

濟州 三多, 風, 石, 女이지만 바람은 視覺으로 나무나 파도로서 認知되고 청각으로 소리의 銳鈍으로 認知된다. 곳곳이 서 있을 나무가 바람에 춤출때 人間은 더욱 아름 다움 驚嘆을 나타내는 것이다. 보리밭의 風波, 防波堤의 파도, 湖水의 잔물결, 瀑布의 물보라등을 바람이 自然에 덧부쳐 주는 造化인 것이다. 이것을 人間은 아름답다고 하고 詩를 쓰고 그림을 그린다.

勿論 靜寂의 美도 있기는 하지만

10) 그러면 觀光客은 왜 濟州에 오는가?

오직 山과 바다뿐만은 보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陸地와 色이 다른 濟州的인 風物이 보고 싶은 것이다. 그러면 濟 州的인 것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自然的인 것으로는 높은 한라산과 白鹿潭 溫暖한 氣候 와 湿度와 바람, 구름, 안개, 特殊한 樹種의 密林, 淨潔 한 바다, 特有的의 果實들 花草들, 火山岩 등등 名所로서 는 萬丈窟을 비롯한 數 많은 洞窟들 천재연을 비롯한 많은 瀑布들 傳統的의 三姓穴, 萬德碑등등 風物로서는 草家 집, 조랑말(生馬잡이등의 由來) 油菜밭, 굴감, 亞熱帶果 實등등, 地學的으로 龍頭岩, 日出峰, 月出峰, 溪谷, 火山 岩등등, 人爲的인 것으로서는 海女, 方言, 飲食, 風俗, 民謠(이여도山) 많은 伝說, 秋史先生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程度이다.

陸地에 이만한 地域에 이렇게도 많은 特異한 古事나 名所 나 伝說이 있는 곳이 또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러한 것이 濟州的인 것이다.

濟州島는 이 濟州的인 것을 조금이라도 損傷 시킬때는 濟州島에는 觀光客이 올 理由가 없다.

人物의 境遇에도 濟州島에 태어나서 그곳의 물을 먹고 成長한 住民이 가장 濟州的인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 濟州的인 것을 살려서 濟州島民의 所得增大를 꾀하는 方法으로 手段으로서 觀光客이 誘致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故로 濟州島는 濟州島民의 것이지 누구의 것도 아닌 것이다. 막말로 大韓民國에 예속해 있 는 濟州島이지만, 國家가 어찌되든 間에 島全體가 海底 로 가라 앉지 않는限에서는 濟州島의 山河은 永遠히 存在 하고 自然은 그대로 存在할 것이다.

國破在 山河란 두보의 詩句도 있지 않은가. 이러한 濟 州島에서 濟州的인 것을 損傷시킬수는 없다. 그것은 우 리의 자랑이요 보배이기 때문이다.

以上을 간추려 10條로 濟州의 모든 것을 생각해 본  
內容이고 綜合的인 結論으로서의 所見은 다음과 같다.

人間은 開發이라는 前提나 美名아래 地球의 表面을 엄  
청나게 損傷시켰다. 甚至於는 그 內臟까지 파헤치고 끌어  
내서 地球를 不均衡으로 하게 해서 頻死狀態로 만들어놓  
고도 큰소리를 치고 있다. 즉 우리는 萬物의 영장이라고  
人間은 原初的으로 地球의 表面에 발 부치고야만 살 수  
있다는 宿命的인 位置에 있는 것이다.

즉 生存의 基本의 場을 깎고 파헤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地球表衣인 樹林을 얼마나 伐採해서 헐 벗겼는  
가? 여기서 公害라는 우리의 生命을 威脅하는 狀態를 낳  
게 했다. 한겨울에 한오라기도 걸치지 못한 우리의 裸體  
를 생각해 보면 알만할 것이다. 그 結果는 滅亡밖에 없  
지 않겠는가. 때문에 一草一木이라도 伐取해서는 안될 것  
이다. (어떠한 理由를 莫論하고) 筆者는 濟州島의 순환  
觀光道路의 街路樹 伐取란 問題에 대해서는 義憤 마저도  
느끼는 것이다. 아니 公憤이라고 함이 마땅할 것이다.

나는 이 施策의 決定權者들에게 反問하고자 한다. 즉  
山과 바다의 眺望에 支障이 있다는 單한가지 理由로서 街  
路樹를 伐取한다고 하면 한라산에 수시로 덮혀있는 구름  
과 안개도 거두어버려야 마땅할 것이 아니겠는가? 바다  
에 이는 바람과 안개도 거둘 것인가? 天帝淵이나 正房瀑  
布가 잘 보이게 옆에 있는 나무나 바위를 부셔야하지 않  
겠는가? 市內의 二層以上の 建物도 헐어 버릴 것인가. 果  
然 濟州島는 觀光客의 것인가? 筆者의 생각으로서는 오  
히려 陸地에 없는 樹種으로 全島에 植樹를 해야 한다고  
본다.

濟州島의 景致의 主要素인 樹木을 伐採한다는 것은  
言語道斷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拙速이 繼續된다면 未來에 濟州島는 喪失될 것  
은 틀림없는 일이라고 斷言한다.

眞正한 意味의 開發이란 民主主義의 正義라는 倫理性  
에 비추어 住民意識의 絶對的인 參與가 併行되어야만 하  
는 것이다.

우리의 國家組織이 中央集權制이고 官主導型이라 할지  
라도 歷史的 記憶을 가진 恣意的인 住民意識의 參與가 없  
는 開發은 名目이나 名分뿐이지 그 內容에는 空虛하다는  
것은 文脈上의 허위일뿐인 것이다.

우리의 자랑이요 보배인 濟州開發은 어떤 時間性을 지  
내서도 안되겠다고 보는 것이다.

누구의 在職時에 꼭 이루어야 한다는 理由가 成立되지  
않기 때문이다. 住民의 參與 專門家의 參與, 研究, 試驗  
을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多幸히도 濟州島는 地域全体가 比較的 협소하므로 全  
島의 MASTER PLAN을 深重히 計劃한 다음 徐徐히 段  
階的으로 實行한다는 과정과 手段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출 안다. 短時間에 잠깐 보고 느낀 新濟州市의 計劃도 將

次 飛行場 擴張과 航空機의 騒音이 너무도 市街地와 가  
깝다는 느낌이었고, 政府의 莫大한 投資가 短時間에 消  
化된다는데에도 問題點이 있을줄 안다.

前記한 住民意識의 參與에서도 問題點은 많다. 즉 住民  
意識이 이部門에 대한 水準이다. 이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濟州大學이 綜合大學이 되고 建築科와 音樂·美術科가 반  
드시 包含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그 理由는 說明안  
해도 自明할 것이다. 여기에 더 添加한다면 近代의인 人  
爲的인 施設로서 더욱 濟州의인 것을 附加한다면 觀光開  
發이란 그 地域의 自然을 損傷시키지 않고서 慰樂施設을  
해야 한다는 點이 되겠는데 例를 들어 海洋公園, 魚族保  
護施設이나 法令制定이나 濟州의인 것의 保護, 勸奨, 民  
俗이나 方言의 保護, 伝說이나 歷史의 發掘도 併行되어  
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아울러 文化的인 行事의 計劃  
과 MASMADIA의 活用이 큰 役割을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筆者도 濟州島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러기에 세번씩  
이나 찾아 濟州의인 것을 滿喫했다. 때문에 人間환경을  
創造한다는 職을 가졌기에 더욱 關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

英語로 台灣을 FOMOSA로 한다. 17世紀 中葉 葡萄牙  
人들이 台灣近海를 航海하다가 그 아름다움에 놀라 그들  
의 言語로 ORA FOMOSA (오-아름다운 섬이여) 라고  
외친 것이 台灣의 英名이 되었다고 들었다. 萬一 그들이  
濟州 近海를 航海했다면 그 아름다움에 더욱 놀라서  
ORA FOMOSA JEJOO를 連發했을 것이라고 생각 된  
다. 그것은 面積은 적지만 台灣과 形態나 內容이 너무도  
흡사하기 때문에 이 台灣에 阿里山이 있고 우리에게 漢  
拏가 있듯이 그 높이나 山勢도 흡사하기 때문이다. 伝說  
도 名所도 어쩌면 비슷한가 말이다.

우리는 이런 自然이 우리에게 준 宝物을 保護하고 가  
꿀 義務가 있는 것이고 더우기 建築家들에게 이러한 問題  
들에 대해 發言할 權利가 있는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地域開發을 官一辺倒로 보다 專門家나  
住民이 包含된 特別構機가 있어 그 決定權을 그 機構가  
管掌하게 하고 官은 行政과 予算과 施行을 主管케 함이  
어떻게 하는 意見도 아울러 말하고 싶은 것이다.

霜降이 지나고 제법 늦가을 初겨울을 느끼게 한다. 自  
然은 이렇게 正確하게 거짓없이 人間에게 時間과 惠澤을  
応報하는데 人間들은 虛偽와 誇張이 眞實과 正義를 알지  
르는 경우가 많으니 안타깝기만 하다. 自然에의 同化와  
適應은 萬古不滅의 美德인데 말이다.

小山이 能幣大山이란 古語가 있다. 즉 적은 山이라도  
能히 큰 山을 다 가리워서 안보이게 할 수 있다는 뜻인  
데 이것을 障礙物과 눈과의 距離에서 左右되는 것이고 15  
cm 程度의 物体를 두눈에 바짝 막으면 모든 것을 다 가리  
울 수 있다.

듣건데 濟州의 傳統的인 草家를 한곳에 모여서 民俗村을 만들고 各處에 分布한 在來의 草家를 撤去한다고 들었다. 이것도 亦是 街路樹 伐取와 다를바 없는 일이다. 龍仁의 民俗村의 失敗를 되풀이하려는 것이 되겠다. 民俗研究者들에게 便宜를 줄 수 있을지 몰라도 觀光客은 그곳만 보면 그만이고 旣 곳은 불 必要도 없으니 돌아가게 될 것이다. 全島의 全體的인 景觀에서 옛부터 자리잡고 있는

그자리의 草家가 濟州의인 것이고 伝說과 由來를 联想케 한다는 것을 잊고 오직 便利 위주로 또 變貌만 시키면 發展이요 開發이라는 생각이 우습다는 것이다.

泰國 BANGKOK 郊外의 民俗村의 흥내를 내서 龍仁에 民俗村을 만든것을 民俗村이란 이름으로 意圖的으로 商行為를 하는 것이지 民俗의인 것을 保全하고 展示한다는 일과는 距離가 아주 먼 것이라고 느껴지는 것이다.

(신진건축연구소 대표)

## 會員作品 原稿作成要領

※ 본지에 게재된 귀하의 設計作品은 본지와 더불어 永久保存되는 귀중한 資料가 되며, 또한 본지에 게재된 作品만이 자동적으로 本協會 建築賞의 候補作品이 됩니다.

### (1) 구비도서 및 작성요령

#### ① 圖面

配置圖: 대지가 소규모인때는 평면도에 접한다. 대규모인 경우는 별도작성(인쇄 크기의 2 배정도 크기)

平面圖: 1층평면·기준층평면.....일반적인 경우

각층평면(지하층포함).....특수한 경우에 추가

斷面圖: 주요 기준단면..... 단순한 경우는 생략

#### ② 作成要領

1. 백지(트레싱지 또는 켄트지)에 점점색으로 잉킹한다. 소규모 건축물에서의 모자이크 타일선 등과 같은 섬세한 부분은 생략 연필선은 지운다.

2. 室名과 縮尺표시는 연필로 기입한다.

3. 방위표시는 잉킹한다

4. 平面圖, 斷面圖의 縮尺은 다음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소규모(주택등)..... $\frac{1}{50} \sim \frac{1}{100}$

중규모..... $\frac{1}{100} \sim \frac{1}{200}$

대규모..... $\frac{1}{200} \sim \frac{1}{300}$

### (2) 寫眞

作品寫眞: 全景, 内部, 詳細 各 2~3 점씩.

(후백) : 全景寫眞은 촬영 불가능한 특수사정인 경우에 한하여 透視圖로 대신 할수 있다. 다만 연필 작도는 불가.

設計者寫眞: 자연스러운 포-즈로 한다. 사진 뒷면에는 그 성명을 명기할 것.

### (3) 建築物概要 및 設計說明

建築物 概要

① 建築物名:

② 所在地:

③ 設計者: 担当 / 事務所名 별도 기입

④ 施工者:

⑤ 規 模: 垜地面積 / 建築面積 / 基準層面積 / 延面積 / 地上層數 / 地下層數 / 層높이 / 建築物높이  
기타施設規模(例·病床數, 客室數, 座席數등)

⑥ 構 造: 主体構造 / 柱스펜

⑦ 設 備: 난방, 空調 / 衛生 / 電氣 기타

⑧ 工 期: 197 . . . . . ~ 197 . . . . .

⑨ 工 事 費:

設計說明

기재내용: 계획과정과 계획방침 특기사항을 간결하게 설명한다. 200자×2~4 장